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1. 4. 28(목) 조간		
배포일시	2011. 4. 27(수) 10: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2150-7610)	담당자	진승우 사무관(2150-7614)

제목: 한-중남미 교역증진을 위한 무역원조 지원

□ 과거 美·EU 등 歐美 선진국 중심의 세계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라 G7을 넘어선 G20 체제로 확대·보편화

- 특히, 중남미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안정을 토대로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하며 유망 거대시장·신흥경제권으로 부상

* '10년 성장률 세계(5.0%), 중남미(5.9%)

□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시, 중남미와 FTA 등을 통한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

- 이를 위해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을 위한 원조 방안'을 중남미 지역에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 중남미 개도국의 발전역량 강화는 물론, 중남미 국가와 FTA 등 제도적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우호적인 교역여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한-중남미 교역증진을 위한 무역원조 지원」 첨부 참조

기획재정부 대변인

한-중남미 교역증진을 위한 무역원조 지원

- ◆ 한-중남미간 교역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바, G20 개발 Consensus를 토대로 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중남미 지역에 구체화할 필요성 증대

I. 검토 배경

- 과거 美·EU 등 歐美 선진국 중심의 세계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라 G7을 넘어선 G20 체제로 확대·보편화

- 특히, 중남미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안정을 토대로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하며 유망 거대시장·신흥경제권으로 부상

* '10년 성장률 세계(5.0%), 중남미(5.9%)

- 갈수록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 감안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FTA 등 제도적 교역기반 확충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가 긴요

*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14.8%로 세계평균(49.2%)을 크게 하회

- 특히, 중남미의 경제적 위상 증대 및 한-칠레 FTA 효과 등 감안시, 조속히 한-페루 FTA 비준을 끝내고 한-콜롬비아 FTA 등 진행중인 FTA도 마무리해 나갈 필요

- 다만, 최근 중남미와 FTA 등 교역확대 논의에서 우리의 對중남미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남미 국가에 대한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 필요

- 이와 관련하여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을 위한 원조 방안'을 중남미 지역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

II. 한-중남미 교역동향

1. 중남미 전체

□ 중남미 전체적으로 '06~'09년 동안에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

○ (수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의 對아시아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남미의 對아시아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對EU, 對미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

○ (수입)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對아시아 수입 증가에 힘입어 중남미의 對아시아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 중남미 교역 현황 및 추이 >

(억불, %)

구 분			아시아		EU		미국		아프리카		계		
			'06 → '09		'06 → '09		'06 → '09		'06 → '09		'06 → '09		
수 출	브라질	액수	245	497	309	334	247	158	74	83	1,384	1,506	
		비중	18	33	22	22	18	10	5	5	100	100	
	아르헨	액수	101	114	80	100	41	37	34	30	464	556	
		비중	22	21	17	18	9	7	7	5	100	100	
	콜롬비아	액수	14	28	36	46	99	132	2	2	244	262	
		비중	6	11	15	18	41	50	0.8	0.8	100	100	
	중남미 전체	액수	737	1,301	1,012	996	3,310	2,776	123	133	7,319	7,556	
		비중	10	17	14	13	45	37	2	2	100	100	
	수 입	브라질	액수	265	480	307	318	163	223	92	86	1,012	1,386
			비중	26	35	30	23	16	16	9	6	100	100
아르헨		액수	84	120	57	64	43	52	3	3	342	388	
		비중	25	31	17	16	13	13	0.9	0.8	100	100	
콜롬비아		액수	61	93	32	51	70	95	1	1	329	329	
		비중	19	28	10	16	21	29	0.3	0.3	100	100	
중남미 전체		액수	1,603	2,491	994	1,156	3,410	2,916	163	149	6,742	7,529	
		비중	24	33	15	15	51	39	2	2	100	10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UNCTAD

□ '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온 우리의 對중남미 교역은 '03년 이후 3.8배 가까이 증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

○ 특히 수출은 '03~'10년간 對세계 평균증가율(13%)보다 큰 폭인 22% 증가하였고, 중남미는 아시아(528억불)에 이어 우리의 2위 무역흑자지역('10년 215억불)

2. 한-칠레 FTA의 효과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은 4.6배 증가

- 對칠레 교역 연평균 증가율은 28.2%로 동 기간 對세계 증가율(14.5%)과 對중남미 증가율(22.5%)을 상회

* 對칠레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33.9%, 수입은 26.8%를 기록

- 2003년 5.2억불이었던 對칠레 수출은 2010년 29.5억불로 5.7배 증가되었으며, 동기간 수입은 10.6억불에서 42.2억불로 4배 증가

< 對칠레 교역 동향 >

(백만불,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7년간(04-10)
對칠레 수출 (증가율)	517 (13.9)	708 (36.9)	1,151 (62.5)	1,566 (36.1)	3,115 (98.9)	3,032 (-2.7)	2,229 (-26.5)	2,947 (32.2)	33.9
동기간 對세계 수출 증가율									14.2
동기간 對중남미 수출 증가율									24.0
對칠레 수입 (증가율)	1,058 (40.3)	1,943 (82.8)	2,279 (17.9)	3,813 (67.3)	4,184 (9.7)	4,127 (-1.3)	3,103 (-24.8)	4,221 (36.0)	26.8
동기간 對세계 수입 증가율									14.8
동기간 對중남미 수입 증가율									19.6
교역 (증가율)	1,575 (30.4)	2,642 (67.7)	3,430 (29.8)	5,379 (56.8)	7,299 (35.7)	7,159 (-1.9)	5,332 (-25.5)	7,168 (34.4)	28.2
동기간 對세계 교역 증가율									14.5
동기간 對중남미 교역 증가율									22.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편, 칠레와 인접한 페루, 콜롬비아 등으로의 우리 수출 역시 동반 증가

- 7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콜롬비아 29.2%, 페루 26.1%로 한-칠레 FTA로 인해 국내기업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른 효과로 추정(무역협회)

Ⅲ. 중남미 개도국의 무역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

- 개도국이 국제무역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역 관련 기술협력, 다자무역체제 적응,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논의 확산
-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뿐만 아니라 WTO DDA 협상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부각

<'무역을 위한 원조'의 구성요소>

무역관련 기술협력	정책·제도 개선, 무역진흥 전략 수립 지원 관련 공무원 역량 증진, 통관절차 개선 등
다자무역체제 적응	다자무역 체제하에서 구조조정 대상 분야 지원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 등 사회적 지출
공급측면 제약 해소	경제인프라(도로 등), 생산능력(설비 등) 확충 지원

- 마라케시 선언*('94)에서 개도국에 대한 무역관련 기술지원 필요성이 언급된 이후 WTO 홍콩 각료회의**('05)를 계기로 '무역을 위한 원조' Initiative 활성화

* UR 협상종결 및 WTO 출범을 선포한 선언으로, 저개발 국가의 무역·투자기회 확대 지원 등 포함

** 일본(3년간 100억불), 미국('10년까지 연간 27억불), EU('10년까지 연간 20억유로) 등은 무역관련 개발원조 지원계획 발표

-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지속 증가(WTO/OECD)
- 적극적인 수출진흥을 통해 발전에 성공한 우리의 경험을 활용하여 중남미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
- 중남미 개도국의 발전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과 FTA 등 제도적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우호적인 교역여건 조성 가능

IV.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중남미 지원 방향

◆ 대표적인 무역흑자지역인 중남미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 강화를 통해 FTA 체결 등 우호적 환경 조성

- 중남미의 아시아시장 접근기회 제고를 위한 개발지식 공유 사업을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협력(한국신탁기금 활용)하여 추진

< 사례 1 : '무역을 위한 원조' 관련 지식공유 사업(추진중) >

◇ 사업목적 : 중남미의 우수한 수출상품의 아시아 시장 접근성 제고

◇ 사업범위 : 정보제공, 연수, 비즈니스 match-making 등

- 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식품박람회인 서울식품대전(Seoul Food 2011, 4.25일~29일, 일산 킨텍스)을 기회로 중남미 식품업체의 對아시아 시장 접근성 제고

- IDB가 중남미 참여업체에 대하여 부스설치 지원 및 비즈니스 match-making 시행

- ② 금년 11월 KOTRA가 주최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박람회를 활용,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남미 국가 대표단을 초청하여 연수*를 시행하고 부스 설치 및 해외투자유치 활동 지원

* 외국인투자 진흥에 대한 아시아의 경험 전수 등

-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으로 지원한 도미니카 공화국 관세청 전산화 사업을 모범사례로 이를 타지역으로 확대

< 사례 2 : 도미니카 관세청 전산화 사업(추진중) >

◇ 사업목적 : 효율적인 관세 징수 및 행정개선, 비리 근절

◇ 사업범위 :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시스템 개발, 백업센터 설치, IT 기자재 구매, 컨설팅서비스

◇ 차관한도 : 2천3백만 달러(연 1.7%, 상환기간 25년(거치기간 7년 포함))